 금융위원회	<h1>보 도 자 료</h1>		
	보도	2020.6.29.(월) 09:00	
책 임 자	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 박 주 영(02-2100-2620)	담 당 자	김 영 준 사무관 (02-2100-2696)
	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서 정 호(02-3145-6770)		김 석 훈 팀장 (02-3145-6774)
	신정원 경영전략본부장 임 충 태(02-3705-5833)		김 인 성 팀장 (02-3705-5984)

제 목 :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개최 결과

1 행사 개요

- '20.6.29.(월)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회사, 핀테크 기업, IT 기업,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.
- (세션1)에서는 “나의 데이터, 금융과 IT를 만나다”라는 주제로 기업들의 발표를 진행하였고, 전문가 토론을 하였습니다.
- (세션2)에서는 마이데이터 허가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.

※ 허가 관련 주요 Q&A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

<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행사 개요 요약 >

- (일시) '20.6.29.(월) 9:00~11:30
- (장소) 은행연합회* 2층 국제회의실 (금융위 유튜브 생중계)
* 서울 중구 명동11길 19
- (주요 참석자) 금융위원회 부위원장(축사), 신용정보원장, 금융결제원장, 금융보안원장, 국민은행장, 네이버파이낸셜 대표,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
- (발표 기업) 국민은행, 네이버파이낸셜, 비바리퍼블리카
- (토론자) 서정호(금융연구원 박사), 최경진(가천대 교수), 조재박(KPMG 본부장), 김태훈(레이니스트 대표), 김철기(신한은행 본부장), 강현정(변호사)

2 금융위 부위원장 축사 주요내용

- 정부는 당면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방역, 금융 안정 노력 등을 기울이면서, 동시에 데이터 댐 구축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혁신성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.
 - 마이데이터는 우리 사회 곳곳에 흐르는 “물”과 같은 데이터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수로를 만드는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.
- 마이데이터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①소비자 중심, ②산업의 확장성, ③상호주의와 공정경쟁, ④정보보호의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 - ① (소비자 중심) 신용관리, 자산관리 등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.
 -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라도 정보의 원천은 소비자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.
 - ② (산업의 확장성) 기존 플랫폼, 새로운 플랫폼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오픈 파이낸스(Open Finance)를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.
 - 데이터 결합과 유통을 통해 금융분야 뿐 아니라 비금융 분야의 산업혁신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.
 - ③ (상호주의와 공정경쟁) 금융회사, ICT, 핀테크 기업 모두 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주의 관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개방하여야 합니다.
 - 정부도 규제차익 없이 다양한 산업분야의 Player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가지겠습니다.
 - ④ (정보보호) 국민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보보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.
 - 데이터 산업의 성패는 해킹, 정보유출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.

3 행사 주요 내용

1. 발표 주요 내용

- 금융회사, IT, 핀테크 등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산업의 확장 가능성, 신기술 기반 서비스 출시, 소비자 편의 향상 등 다양한 관점으로 마이데이터의 발전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.
- ① (금융회사) 금융산업과 여러 산업과의 연계가 강화되어 금융의 영역이 확장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
- ② (IT) 기술과 데이터의 만남은 금융정보와 비금융·생활정보를 연결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외 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
- ③ (핀테크) 소비자가 자신에게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예측

2. 토론 주요 내용

- 토론자들은 마이데이터가 금융업권, 산업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, 동시에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을 보호하는 데에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- 마이데이터는 우리나라를 데이터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며, 글로벌 선진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.
- 나아가,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성공은 향후 의료, 유통, 에너지 등 다른 산업분야로의 확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.
- 또한, 모두가 정보 오·남용 예방, 정보주체의 원활한 권리 행사 보장 등 정보주권 실현을 위해 항상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.

<※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>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I. 마이데이터 서비스 주요내용

□ **금융정보 통합조회, 맞춤형 금융상품** 자문·추천, **개인정보 삭제·정정 요구, 신용정보 관리, 금리인하요구권** 대리행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

- (통합조회)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예금·대출·보험납입 내역 등의 신용정보를 손쉽게 보관·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
- (맞춤형 서비스) 투자·소비·지출 등에 대한 다양한 패턴을 분석하여 절세, 저축 등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및 자산관리 지원
- (권리 보장) 금융회사 등에게 전송요구권, 열람청구, 삭제요구, 프로파일링 대응권* 등 정보주체의 정보권리 행사를 대행

* 신용평가, 금리·보험료 산정 등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가 기계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진 경우,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·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

<업권별 주요 마이데이터 서비스 (예시)>

업권	정보 활용	주요 서비스
은행	· 계좌거래 내역, 대출 잔액, 금리·이자 등의 다양한 금융자산 현황 등을 분석	· 저축, 재테크 방안 안내 등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
카드	· 카드사용 일시, 결제 내역, 카드대출 이용 등의 소비패턴 분석	· 다양한 카드사용 혜택 제공 및 합리적인 소비습관 개선 지원
금투	· 투자종목, 투자금액, 자산규모 등의 투자 정보를 통해 투자패턴 분석	· 세제 혜택, 투자습관 개선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제공
보험	· 보험료 납입내역, 보험기간, 보장내역 등의 보험정보를 통해 노후예측 및 건강 분석	· 연금관리를 통한 노후설계와 저비용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핀테크	· 은행, 카드, 증권, 보험 등 여러 금융업권의 금융상품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·분석	·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및 정보주체의 정보권리 행사 대행
IT	· 금융과 통신, 유통 등의 데이터와 융·복합	· 통신정보기반 금융상품, 유통정보기반 금융상품 등 고부가가치 혁신서비스 제공

II.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

1. 소비자 측면

①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, 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**자신의 신용정보**(금융 상품 가입 내역, 자산 내역 등)를 **한 눈에 파악**하여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

○ 은행, 보험, 카드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어 쉽게 금융정보에 접근*이 가능합니다.

*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하여 낮은 금리와 수수료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용관리를 통해 신용점수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능

○ 자신에게 특화된 정보관리·자산관리·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게 됩니다.

<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본인정보(예시)>			
예금·대출	· 월 납입액, 금리, 만기일, 대출 잔액, 상환일, 이자 등	보험	· 보험 만기일, 납입 금액, 주기, 보험대출 정보 등
신용카드	· 결제내역, 포인트, 청구금액, 할부정보, 카드대출 정보 등	금투상품	· 거래단가, 잔액, 매입금액, 계좌 상태, 예수금, 세제혜택 정보 등
통신	· 통신료 납부내역, 소액결제 내역 등	지급결제	· 간편결제, 간편송금, 전자화폐 충전금액, 포인트 등
공공정보	· 행안부, 국세청 등의 국세·지방세 납부정보, 전기·수도 납부정보, 건강보험, 국민연금 등 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정보 등 공공부분의 신용정보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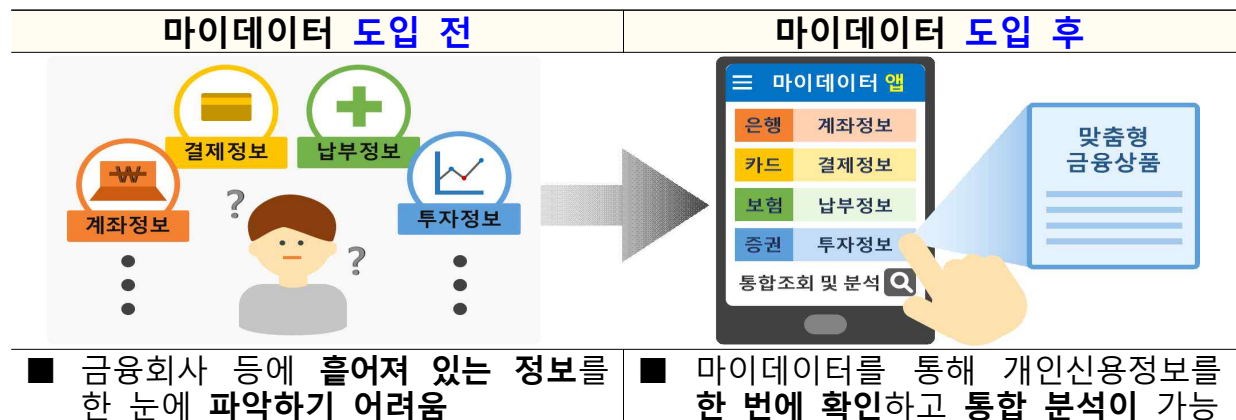
② 카드 거래내역, 보험정보, 투자정보 등을 분석·관리하고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받는 등 **소비자의 금융주권**이 보호됩니다.

○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여 유리한 상품에 가입하고, 금융회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타 회사 상품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금융회사 등에 금리인하 요구,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의 권리 행사를 통해 데이터 주권이 강화되고 소비자 권익이 향상됩니다.

* (예시) ① 거래금액, 이자율 등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대신 관리하도록 하여 금융상품의 수익률 등을 개선
 ② 대출잔액, 월 상환액 등 신용정보를 제3자(금융회사, 핀테크 기업 등)에게 전송하도록 요구 및 공유 → One Stop 온라인 대환대출 실시

- ③ 앞으로 금융정보 뿐 아니라 유용한 **공공정보**(국세·지방세, 4대보험료 납부내역 등)도 손쉽게 **수집·관리**가 가능합니다. (*공공분야 MyData 연계)



2. 산업 측면

- 금융기관의 인지도가 아닌 소비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의 혜택을 기준으로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됩니다.
 - 데이터 이동 활성화 등에 따른 금융상품의 비교·공시 강화는 보다 소비자 친화적 상품이 시장에서 활성화되도록 합니다.
 - 금융회사 간의 데이터 이동은 금융회사가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.
- **데이터 산업**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**인프라**가 구축됩니다.
 - 데이터 전송이력, 활용내역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정보보호·보안 측면이 향상되어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환경이 조성됩니다.
 - API 도입, 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데이터 산업 진입장벽이 완화되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추진이 쉬워집니다.

3. 보안 측면

-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보주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금융보안원 보안관제* 가입의무를 부여합니다.

* 금융보안원 금융보안관제센터(사용자 100만명 이상시 필수 가입)를 통한 해킹 시도 모니터링, 취약점 분석 및 사고 상황전파·대응조치 수행체계 구축